

즐거볼까? 불교영화 3國 3色



63개국 245편 출품... 불교 소재 영화 3편
제11회 부산국제영화제, 10월 12~ 20일 개최



복수를 끝마치고 죄업을 씻기 위해 긴 구도여행을 떠났던 성자 '밀라레파'를 영상으로 담아낸 티베트의 '밀라레파'.

제1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 12~20일 부산 남포동 해운대 4개 극장에서 63개국 245편의 영화를 들고 찾아온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불교적인 소재를 차용한 작품은 세 작품이다. 티베트 영화 '밀라레파' 홍콩 오락영화 '삼장법사의 모험', 중국 다큐멘터리 '긴강'이 그 주인공. '아시아 영화의 향'에서 만날 수 있는 티베트 영화 '밀라레파'는 티베트 최고의 성자 밀라레파의 일화를 통해 복수와 악마 살인 참화에 관한 이야기

를 담고 있다. 키엔제 노르부 감독의 '컵' '나그네와 마술사'에 출연했던 부탄의 수도승 네넨 초클링 린포체가 감독으로 데뷔한 작품이기도 하다.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난 밀라레파는 삼촌에게 가산을 빼앗긴 후, 복수를 위해 주술을 배운다. 복수에 성공하지만 무자비한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게 된 밀라레파. 죄업을 씻기 위해 스승의 인도로 영적 교화를 위한 긴 여행을 떠난다. 작품성과 오락성을 두루 갖춘 12개국 13편의 영화를 만날 수 있는 '미드

나잇 패션'은 심야상영 색션이다. 서유기를 기발하게 각색한 홍콩 코미디영화의 귀재 제프 라우 감독의 '삼장법사의 모험'이 상영되는 색션이기도 하다. '삼장법사의 모험'은 손오공이 아닌 삼장법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이 독특하다. 제프 라우 감독은 '서유기 월광보합' '서유기 선니기린' 등 서유기를 새롭게 해석한 작품들로 100대 중국영화감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악마군단에 납치된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을 구하기 위해 여의봉을 들고 간신히 탈출에 성공한 삼장법사가 모험을 시작한다. 최강의 무기 여의봉을 들고 모든 일을 대화로만 해결하려는 순진한 삼장법사의 모험이 유쾌하게 그려진다. '아시아 다큐멘터리 네트워크'에서는 후양 웨이하이 감독의 '긴강(長河)'을 만날 수 있다. '긴강'은 중국의 한 작은 소도시에 있는 '로터스 파인 하우스(Lotus Fine House)'가 주무대다. '로터스 파인 하우스'는 불자들이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매년 2~3개월을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며 노인과 장애인들

대상으로 무료로 봉사활동을 하는 불자들이 카메라는 잔잔한 시각으로 쫓는다. 이미 시장경제에 의해 과거의 가치들이 무너진 가운데에서도 단호한 실천력을 보여주는 중국 불자들의 꿈과 활동을 통해 중국의 새로운 시민 사회 구축사업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밖에 '와이드 앵글'에서 소개되는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는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는 한국 다큐멘터리다. 새만금, 대추리, 줄기세포, 비정규직, 한미 FTA 등의 현장에서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자와 미디어 활동가들이 한국사회의 현재에 대한 16개의 기록을 담고 있다. 올해 4월 타계한 신상욱 감독 추모전은 '한국영화 회고전' 코너에서 마련된다. 올해 처음 HD로 복원된 '열녀문'이 관객들을 찾아간다. 9월 29일~10월 20일에는 임권택 감독이 교장을 맡은 아시아영화아카데미(AFA)가 아시아지역 기성 감독들과 젊은 예비 영화인들이 함께 아시아 영화의 미래를 준비한다. www.piff.org, (02)3675-5097, (051)747-2861



'밀라레파' 넨넨 초클링 감독. '긴강' 후양 웨이하이 감독. '삼장법사의 모험' 제프 라우 감독.



홍콩 제프 라우 감독이 빚어낸 상금·발달 오락영화 '삼장법사의 모험'.



한국영상자료원이 대만에서 발굴해 2년여의 복원과정을 거쳐 처음 공개하는 신상욱 감독의 대표작 '열녀문'.

사랑 아닌 학대 일삼는 동물 프로그램 '이제그만' (사)보리 방송모니터팀

(사)보리 방송모니터팀이 9월 12일 발표한 '생명생태 시각에서 본 동물 프로그램-애완- 모니터보고서를 통해 방송에서 비취지는 '애완'은 사랑이 아니라 '학대'가 되는 잘못된 애완동물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모니터팀이 5월 9일~7월 31일 '주주클럽' 등 KBS 프로그램 4개, '생방송 화제집중' 등 MBC 프로그램 3개, 'TV 동물농장' 등 SBS 프로그램 4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다. 이 결과에 따르면 동물 프로그램에서 드러나는 반생명생태성은 △무분별한 애완동물 확산 조장 △동물 오락화 △동물 경제상품화 △인위적인 연출로 인한 동물학대 △기타 생태 왜곡 등이다. 친생명생태적 사례도 소개했다. '하반신 불구 유기견 업어서 키우는 가족'(SBS), '장애견과 청각장애인 아줌마의 사랑'(MBC), '늙은 물개와 사육사의 우정'(KBS) 등은 생명을 살리는 방송이었다고 평가했다. 방송모니터팀은 우리나라 동물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귀여움을 받는 존재로 보호받는 '애완동물'이 아닌 인생을 함께 하는 '반려동물'로 시청자의 인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동물이 인간과 똑같은 생명체로서 본연의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의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 쉽게 수단화 오락화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강지연 기자

대립을 상생으로...

조각·음악·시·춤의 만남

조각 음악 시 춤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김명숙 늘휘무용단이 2006 신작 '상(想)·상(想)'을 들고 창단 10주년 기념공연에 나선다. 9월 29~30일 서울 LG아트센터에 오르는 이번 공연의 첫 날은 지난해 주목 받았던 '알수없어요'가 장식한다. 황병기 교수(이화여대)의 70여분에 이르는 가야금 대곡에 맞춰 안무된 '상·상'은 소리가 춤이 되고, 춤이 소리가 되는 악(樂)·가(歌)·무(舞) 일체의 무대를 선사한다. '알수없어요'에 이어 조각가 故 유영교씨의 조각이 무대를 장식한다. 늘휘무용단은 1999년부터 인연을 이어온 유영교씨가 몇 달 전 갑작스럽게 타계해 이번 무대를 그를 위한 헌정무대로 마련했다. 故 유영교씨의 아름다운 조각을 무대 위에

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자연과 인간, 과거와 미래, 느림과 빠름, 정신과 신체라는 대립적 화두를 상생의 이미지로 공존시키고자 만들어진 '상·상'은 '김명숙류 자연주의 서정춤'의 완성을 이끌어낸다. 하늘은 땅을 지향하고 땅은 하늘을 사모한다. 달의 흔적이 남아있기에 '월석'으로 불리는 땅의 존재는 늘 달이 속해 있는 하늘을 꿈꾼다. 제1장 '월석'은 이렇게 의미를 가진다. 제2장 '명경'에서 흐르는 물은 대지를 적시는 대모(大母)인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하나의 거울이 된다. 인간에 있어서 최초의 불은 제3장 '초불'에서 정열과 믿음, 꿈의 상징으로 되살아난다. 무대의 마지막은 제4장 숲소리로. 자연의 바람이 빨라지듯 인간의 호흡도 빨라지면 소요와 침묵



'알수없어요'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공연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고의 작품이라는 평을 받으며 선정됐다.

속에서 투명한 우주로 가볍게 날아오른다. 이번 무대의 이색적인 점은 인터넷의 활용이다. 공연실황을 스페인 바르셀로나 아시아 문화센터에서 HD급 초고화질 방송으로 생중계하는 세계 최초의 공연을 시도한다. (02)2005-0114 강지연 기자

<고침> 본지 594호 28면에 보도된 육지장사 '윤림축제'를 '윤림축제'로 바로잡습니다.

想·想
김명숙 늘휘무용단 10주년 기념 공연
서울 LG아트센터, 9월 29~30일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LED 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랑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저렴하게 제작해 드립니다

종등 팔각봉축접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예수제·천도법회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찬덕연등